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역할 개선 프로그램*

이 정 현·유 재 원·이 혜 민·김 한 나·장 형 조·김 선 민
(충남대 소비자생활정보학과 4학년)

최근 들어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2009)에 따르면 2009년 12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전체가 125,087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그 중 여성이 109,211명으로 전체의 80%를 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 이혼 건수는 2005년 2382건에 반해 2009년에는 8300건으로 3.48배 증가하였다. 또한 2005년 국제이혼 건수 중 협의이혼이 약 57%를 차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29%로 하락하였다. 그 반면 재판이혼은 43%였던 것이 71%로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인 아내의 교육에 관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은 반면,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찾아보기가 어렵다(박기관2008, 김민경2009, 김은경2010). 결혼이민자인 아내뿐 아니라 남편의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있다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 본 연구에서는 남편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의 남편이 배우자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며 협력적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자녀관계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특히, 본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정의 남편에게 기본적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갖게 하며, 한국과 아내의 나라와의 문화차이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 방법과 갈등 해결방법을 습득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자녀양육태도를 통해 아버지의 역할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개요는 결혼이민자 아내를 둔 내국인 남편부부 6쌍을 대상으로 1회기 당 100분씩 총 6회기로 하기로 하되 3회기는 120분으로 진행한다. 1회기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자기소개, 가족소개를 한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설명서를 쓰는 활동을 하여 내가 아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느끼게 한다. 2,3회기는 아내를 이해하는 활동으로 문화이해하기와 언어배우기, 아내의 나라에 대한 요리대회를 하고, 4회기는 아내 존중하기로 역할극을 통하여 서로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서약서로부터 개선점을 쓰기로 한다. 5회기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개선 프로그램으로서, 나는 아이에게 어떤 아빠인가를 쓰며 반성의 시간을 갖고, 어떤 아빠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작성하며 아이와 함께 엄마나라 동요배우기를 통하여 열린 마음을 갖게 하며, 우리가족 강점 찾기를 통하여 아이에게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아버지에게는 열등감을 해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마지막 회기에서는 1회기에서 하였던 아내에 대한 설명서를 다시 써보도록 하여, 프로그램 전후를 비교하여 본다. 또한 프로그램 동안 찍은 사진으로 앨범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은 것을 정리하고, 다음에 앨범을 펼쳐보았을 때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인 남편에게 배우자 나라의 사회 문화와 가정의 문화를 습득함으로써, 양 나라간의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생활교육 및 평가' 교과목의 수행과제임